

K리그1 전북현대, 수원과 무승부

조규성, 전반서 시즌 첫 골 후반서 수원에 동점골 내줘 이후 양 팀 추가 득점 실패
울산현대는 강원에 1-0 승



하나원큐 K리그1 2023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 열린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 조규성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보경 데뷔가 펼쳐진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 수원 삼성이 1-1로 비겼다. 전북은 개막전 패배에 이어 2경기 연속 무승(1무패·승점 1)으로 첫 승에 실패했다. 1라운드에서 승격팀 광주FC에 0-1로 달미를 잡았던 수원은 1무1패(승점 1)다. 전북이 전반 9분 아바노 준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조규성이 키커로 나서 성공하며 앞서갔다. 지난 시즌 17골로 K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조규성의 시즌 첫 골이다. 하지만 추가 득점을 놓친 전북은 후반 수원에 동점골을 내줬다. 수원은 이번 시즌 FC안양에서 이적한 아코스티가 전북 수비수 김진수를 제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이후 양 팀은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전북은 조규성이 한 차례 더 골망을 갈랐지만, 반칙으로 무산됐다. 수원은 안병준과 고승범이 연속해서 골대를 때리며 땅을 쳤다. 같은 날 울산 현대는 강원FC를 꺾고 개막 2연승을 질주했다. 울산은 이날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

서 치러진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엄원상의 결승골로 1-0 승리했다. 지난달 25일 개막전에서 전북 현대를 2-1로 이겼던 울산은 개막 2연승을 달렸다. 반면 강원은 개막 2연패를 당했다. 마틴 아담 바코, 아타루 등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린 울산은 전반 21분 만에 2002년생 장시영을 불러들이고

엄원상을 조기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강원은 지난 시즌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양현준을 중심으로 디노, 김대원 등이 선발 출격했다. 전반을 득점 없이 0-0으로 마친 울산은 후반 4분 엄원상의 선제 결승골로 균형을 잡았다. 강원은 공격을 막아낸 뒤 역습 찬스에서 박용우가 길게 찔러준 패스를 전

방에서 뉘이텐 뒤 상대 골키퍼까지 제치고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승기를 잡은 울산은 개막전 결승골 사나이 루빅손을 시작으로 주민규, 김민혁, 조현택 등을 교체로 투입하며 균하기에 들어갔다. 다급해진 강원은 갈레고, 알리비에프, 케빈 등을 교체 투입하며 동점골을 노렸지만, 끝내 울산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뉴시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한 고진영 (사진=LPGA 공식 누리집 갈무리)

고진영, LPGA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 2연패

4라운드서 3언더파 쳐 최종 함께 17언더파 우승
15언더파 친 넬리 코다 제치고 대회 2연패 성공

고진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 2연패를 달성했다. 고진영은 5일(한국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 탄종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3언더파를 쳐 최종 함께 17언더파 271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1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고진영은 이날 버디 4개를 잡았지만 보기를 1개 범했다. 2위는 15언더파를 친 넬리 코다(미국)였다.

이로써 라덴딩 챔피언 고진영은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아울러 고진영은 이번 우승으로 통산 14승째를 수확했다. 고진영은 지난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우승 이후 정상에 서지 못했고 세계랭킹은 1위에서 5위까지 떨어졌다. 절치부심한 고진영은 시즌 첫 대회인 혼다 LPGA 타이완에서 공동 6위에 올랐고 이어진 다음 대회에서 예전의 위용을 되찾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뉴시스

EPL 토트넘, 울버햄튼전서 충격 패배

트라오레에 선제 결승골 허용하며 울버햄튼에 0-1패

손흥민이 모처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는 하위권에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충격 패배를 당했다. 토트넘은 5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2022~23 EPL 원정경기에서 손흥민을 비롯해 해리 케인과 데얀 쿨루셉스키 등 공격 삼각 편대를 선발 출전시켰지만 후반 37분 아다마 트라오레에게 선제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졌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교체 출전시켰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첼시 등 두 차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4위까지

뛰어올랐지만 공교롭게도 다시 손흥민을 선발로 복귀시킨 울버햄튼과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 2연승이 끊겼다. 반면 울버햄튼은 사우샘프턴과 경기에서 2-1로 이긴 뒤 1무 2패로 3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다가 모처럼 승점 3을 챙겼다. 울버햄튼은 7승 6무 13패(승점 27)로 크리스탈 팰리스(6승 9무 10패, 승점 27)에 골독살에서 뒤진 13위가 됐다. 앞선 경기에서 5위에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에 0-2로 져 10승 11무 3패(승점 41)에 머물렀기에 토트넘으로서는 승점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였다. 토트넘은 울버햄튼과 경기를 제외하고 14승 3무 8패, 승

점 45였기 때문에 울버햄튼전을 승리한다면 승점이 48이 돼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손흥민을 선발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었다. 비록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축구협회(EA)컵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케인과 손흥민, 쿨루셉스키 삼각편대를 앞세워 EPL 3연승을 달리려 했다. 손흥민은 비교적 공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 전반 4분 페널티킥 지역 오른쪽 바깥 지역에서 강한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노렸다. 울버햄튼 골키퍼 조세 사의 선방이 있긴 했지만 충분히 골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력이었다. 손흥민은 전반 43분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오른쪽 슈팅이 크로스바를 크게 넘어가 아쉬웠다. 가장 좋은 기회는 후반 2분에 나왔다. 미드필드 중앙에서 케인의 패스

를 받은 손흥민이 왼쪽을 돌파한 뒤 왼발로 때린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렸다. 케인과 손흥민, 쿨루셉스키는 비록 골을 터뜨리진 못했지만 토트넘은 전반적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그러나 토트넘은 단 한방에 무너졌다. 라울 히메네즈가 후반 37분 때린 슈팅을 토트넘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가 막았지만 공은 그대로 트라오레에게 흘러갔다. 트라오레는 이를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했고 공은 크로스바 밑을 때리고 골라인을 넘어갔다. 토트넘은 후반 40분 벤 데이비스를 빼고 히샤리리송까지 투입하며 총공세를 폈지만 울버햄튼의 단단한 수비는 토트넘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다. 토트넘은 21개의 슈팅을 때리고도 울버햄튼 골키퍼 사의 선방에 막혀 영패를 당했다. /뉴시스

순창군 소프트테니스, 국대 배출 '쾌거'

윤형욱·김병국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이 국가대표를 연속으로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윤형욱·김병국 콤비(순창군청)는 지난 1일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3년도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현수·김현수 짝(달성군청)을 꺾고 남자 복식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군에 따르면 윤형욱 선수는 작년 순창군에서 새로 영입한 선수로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고, 김병국 선수는 16년도에 순창군에 영입되어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고 밝혔다. 양은욱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 팀 단장은 "두 선수는 항상 긍정적인 성격으로 열심히 훈련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만큼 9월경에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입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